

지역 소식통

김제새일센터, 16일 구직희망여성 '취업인식전환' 특강

김제시(시장 정성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교육장에서 구직희망여성 12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취업인식 전환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 관련 긍정적 인식을 형성해 활발한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취업에 희망하는 여성들의 자신감 향상과 자기효능감 고취 등 취업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된다. 특강에는 가온코칭센터 신장철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구직희망 여성을 위한 '주도적 구직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특강을 이수한 실업급여수급자는 현장에서 구직활동 확인증도 발급받게 된다. 여성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여성에 대한 직업상담, 구인·구직 사업제 연계관리, 직업 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인턴 제공, 취·창업 지원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죽산면 지사협, 정기회의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영석)가 14일 죽산면 복지회관에서 협의체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 1명에게 위촉장 수여와 2023년 협의체 활동보고, 사업성과, 2024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중점 운영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맞춤형 지원, △트러스트사업인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분기별 제철과일 배달, △저소득소외계층 맞춤형 지원대상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영석 민간위원장은 "모든 위원들과 함께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전주 통합 ‘동상각몽’”

전주KBS 등 여론조사, “완주군민 55%가 반대”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통합 불가능” 강조

“완주-전주 통합 논란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완주군민들 인식에 큰 변화가 없으며, 사실상 완주군에 실익이 없습니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동상각몽(同床各夢)’을 빗대어 두 지자체 간 통합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14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주KBS와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주군민은 ‘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가

42%, ‘대체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가 55%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난 2013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5.34%, 찬성 44.65%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10여 년간 완주군민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완주군민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이미 3차례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경험에서 봤듯이 선부른 통합추진은 주

민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남용 의장은 “완주군은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로 독자적 성장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사실상 완주군에 실익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논의보다는 인구 10만 명이 다가오는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완주군의회는 정책 연구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14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제시, ‘1회용품 없는날’ 실천 캠페인

전통시장과 터미널사거리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4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터미널사거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장 볼 때는 장 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음식 포장 시 다용용기에 담아가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등의 홍보와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했다. 또 시는 실생활 속에서 1회 용품 사용 안하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는 그간 청사세에서 △1회용품 대신 개인 텀블러 및 다용용 컵 사용하기, △민원인 방문 시 다용용 컵 및 접시 사용하기, △개인휴지통이 아닌 공동분리수거함을 사용하기, △일회용 우산 비닐 덮개 대신 빗물 제거기를 권장하고, 공공청사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식 개선과 깨끗한 김제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전북자치도-도교육청 공동 ‘완주키움특구’ 교육부 제출

완주군이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 신청했다. 14일 완주군은 ‘출중한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완주키움특구’를 주제로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완주형 교육발전특구는 △13개 지역 돌봄 인프라와 완주어울림버스(가칭) 돌봄 교통체계 마련 △공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지역특화전형(수소, 반도체, 자동차) 연계 지역인재 발굴 및 지역 기업체 맞춤형 취업 연계 △외국인 및 유학생 정주여건 강화 등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담았다.

완주군은 교육발전특구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회의를 수차례 열어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완주교육지원청, 군의회, 우석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하이테크고, 한별고, 완주산단진흥회,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 등 9개 기관·단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완주형 교육 모델 발굴에 역량을 결집했다. 유혜태 완주군수는 “교육은 인구 유입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완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 전국 부모들이 찾아오는 도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특구 지정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차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에 최종 지정된다. 2차 공모는 올해 5~6월 공모해 7월에 최종 지정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 8년 연속 선정

김제시립도서관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작은 도서관에 지역의 전문 운영인력을 지원해 작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순회사서 1명의 인건비, 방문활동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3천만원의 사업비(전액국비)를

지원받아 김산, 죽산, 길보 작은도서관 3곳을 방문하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길보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운영자가 변경된 상황에서 도서관리 시스템 활용과 도서 정리작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순회사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회사서 사업에 선정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김제시, 사업 애로사항 등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14일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2024년 기금사업으로 총 220억원을 투입해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는 9개 추진부서가 참여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2022~2023년 사업 중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부서별 추진 상황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며, 남은 기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양글방글 아이러브 아이트 조성), 스마트팜 청년농 유입과 귀농·귀촌 생활인구 활착을 위한 사업(새마을 청년 복합 커뮤니티 조

성,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육성, 지역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앵커센터 운영, 귀촌청년 로컬재생 거점공간 조성),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웅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 공원형 문화여행 생활인프라 조성)으로 총 7개 사업이다. 이날 부서별 실행할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시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간 지자체에 총 1조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은 매년 투자계획과 각 투자계획별 성과에 따라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기금이 차등 배분됨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추진하는지 그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성과가 끝 내년 평가로 연결된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weight loss services. Text: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